

퍼마파이프 인터내셔널 홀딩스,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및 연간 재무 결과 발표

- **순매출 4분기 4500만달러, 연간 1억5840만달러 기록**
- **법인세 차감 전 이익 4분기 530만달러, 연간 1850만달러**
- **2025년 1월 31일 기준 수주잔고 1억3810만달러, 2024년 1월 31일 기준 6850만달러 대비 증가**

스프링, 텍사스--(BUSINESS WIRE)-- 퍼마파이프 인터내셔널 홀딩스(Perma-Pipe International Holdings, Inc.)(나스닥: PPIH)가 오늘 2025년 1월 31일 마감된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및 연간 재무 실적을 발표했다.

최고경영자 데이비드 맨스필드(David Mansfield)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2024년 4분기 및 연간 매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4500만달러와 1억5840만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480만달러 및 770만달러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및 연간 세전 이익은 530만달러와 1850만달러로 전년 대비 210만달러와 860만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마진율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한 전략이 마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결과이다.

세금 및 비지배지분 차감 후 순이익은 2024년 4분기 150만달러, 연간 9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4년 순이익은 1050만 달러를 기록한 전년도보다 150만달러 감소했지만, 이는 전년도에 과거 세금 손실에 대한 이익을 인식하면서 590만달러의 일회성 비현금 세금 혜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금 혜택의 영향을 제외하면, 세금 및 비지배지분 차감 후 순이익은 440만달러가 증가했다."

맨스필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주잔고는 연중 내내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현재 1억381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수주잔고의 증가로 회계연도 2025년을 유리한 입지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맨스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세전 이익, 마진 개선, 수주잔고의 상당한 증가로 입증된 것처럼 한 해 동안 상당한 마일스톤을 달성했다. 2023년에 설립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인트벤처의 성과는 계속 기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바르스(Vars) 신규 시설에서도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맨스필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2024년은 회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2025년에도 좋은 모멘텀을 지속할 뿐 아니라, 퍼마파이프가 향후 대형 프로젝트에 적합한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는 카타르 프로젝트의 기회도 포함된다. 조인트벤처의 성공으로 사우디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었고, 최근 북미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보여 고무적이다."

회계연도 2024년 실적

순매출은 2025년 1월 31일과 2024년 1월 31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각각 1억5840만달러와 1억5070만달러를 기록했다. 770만달러의 증가분은 주로 중동과 캐나다에서 판매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